



[산업]
대기업 주총시즌 개막
관전포인트는
06



Life

[라이프]
롯데뷰 유어브랜드 론칭
4세대 화장품 시대
니



노오란 유채꽃 물결 출렁 제주에 봄이 피었습니다



조천읍 서우봉 유채꽃.

/이민희 기자

메트로 트래블

‘멘도롱포뿔’은 ‘기분 좋은 따뜻한’이라는 의미의 제주어다.

지난 13일, 금요일일에도 제주시 조천읍 서우봉 봉우리에는 유채꽃밭을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이 방문했다. 하늘엔 패러글라이더들이 날고 있고, 가마터 가기전 도내 관광명소 서우봉 산책로를 따라 유채꽃들이 피기 시작했다.

둘레길은 서우봉 언저리를 쭉돌아 볼 수 있는 길이고, 산책로는 함덕리 주민들이 낫과 호미만으로 2년에 걸쳐 조성한 약 2.5km의 길이다. 앉아서 경치를 감상하며 쉴 수 있는 정자도 있으며 다양한 제주어 글귀가 적혀있는 팻말들이 이곳저곳에 있어 해안을 바라보며 산책하기엔 그만이다.

관광객 급감 속 ‘코로나19 대비’

제주특별자치도는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14일 12시 기준 4명으로 대한민국 최저 수치다. 16일, 도내 코로나19 확진자의 모든 접촉자들이 자가격리에서 해제된다고 제주 재난안전대책본부 밝혔다.

지난 12일 기준 제주 방문 외국인 관광객은 118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4143명과 비교해 97.2%가 감소했다. 제주 방문 내국인 관광객은 1만 7600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2만 8638명 대비 38.5% 감소했다. 제주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2월 20일부터 3월 12일까지 제주를 방문한 내국인 관광객은 37만 5911명으로 지난해 동기간 70만 1670명 대비 51% 감소하였으며,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동기간 대비 91% 감소했다.

12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코로나19 대응 회의에서 서울 구로 콜센터 집단감염 사태가 제주에서도 발생하지 않도록 큰 시설에 대해 관리체계 구축을 강조하며 제주 도내 주요 콜센터 7곳 및 민간 콜센터 시설에 대한 긴급점검·지도와 방역에 나선다고 밝혔다.



방역관리 중인 제주도청



제주돌문화공원.

/이민희 기자

따끈따끈 봄소식 전하는 제주 유채꽃

제주의 봄을 여는 꽃 유채. 그 조그맣고 노란 잎이 점점이 섬을 수놓아가면 움츠러든 몸과 얼어있던 마음도 점점 녹아들기 시작한다. 산방산과 성산 광치기해변, 섭지코지에는 잔뜩 물오른 봄이 대기 중이요, 엉덩물 계곡, 쇠소깍, 한담해안도로 주변으로도 노란 봄이 번져가며 설렘도 몽글몽글 피어난다.

3월 말~4월 초면 가시리 녹산로와 유채꽃 프라자도 노랗게 물들며 제주의 봄이 익어간다. 꽃이 어디 유명세만 따라 피라, 예상치 못한 곳에서 우연히 만난 자그마한 유채꽃 군락은 반가움이 두 배다. 사진만 찍고 떠나기보다 유채꽃 주변을 걸어보자. 경쾌한 노란빛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향기를 뿜어내며 짧은 봄을 더 선명하고 향긋하게 기억시킬 것이다.

제주도 설화 간직한 ‘제주돌문화공원’

제주돌문화공원은 한라산 영실에서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 설화를 중심 주제로, 제주의 형성과정과 제주민의 삶 속에 녹아있는 돌문화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박물관 겸 생태공원이다.

민관공동작업으로 326만 9731㎡대 지위에 2020년까지 조성되고있는 돌문화공원은 제주 돌문화의 과거, 현재, 미래가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서 제주도민이 자랑스러워하고, 내외국인이 제주의 자연과 문화를 맞볼 수 있는 종합문화공원으로 거듭나고 있다. 매일 첫째주 월요일은 휴원하며

문화관광해설사도 공원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신청할 수 있다.

세계유일 평지분화구 ‘산굼부리 분화구’

찬란한 아침을 열고, 구름도 쉬어가는 곳. 세계유일의 평지분화구 산굼부리다. 국가지정 문화재 천연기념물 제 263호다. SBS 드라마 ‘결혼의 여신’, 영화 ‘연풍연가’ 촬영장소이기도 한 역새길과 구상나무길, 제주돌길은 피톤치드의 주성분 테르펜이 가장 많이 나오는 구상나무에 둘러싸여 있어 스트레스 해소, 면역력 강화, 천식과 아토피 치료, 항균과 항염증 작용 등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자연 치유력을 높여준다. 연중무휴고 산굼부리 해설 프로그램도 준비되었다.

몰입형 미디어아트 ‘빛의 벙커’

프랑스 몰입형 미디어아트 ‘빛의 벙커’가 제주 서귀포시 성산에서 10월 25일까지 열린다. 빛의 벙커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시는 반 고흐의 감자 먹는 사람들, 별이 빛나는 밤, 해바라기에서부터 아틀의 반 고흐의 방에 이르기까지 격변을 거친 반 고흐의 다양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대담한 색의 사용으로 그림에 독창성을 더한 반 고흐의 표현력과 강렬한 붓터치를 벙커 벽면과 바닥을 통해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빛의 벙커의 이번 몰입형 전시는 반 고흐의 감성적이고 혼란에 가득 찬 시적인 내면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빛과 그림자의 끊임없는 소통돌이를 보고 느낄 수 있다.

/제주=이민희 기자 lnh@metroseoul.co.kr

/취재협조=제주관광협회 서울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학회

세부퍼시픽항공

‘비행기 타고 가요 2’ 크루들과 감동 비행기

승무원 체험 예능서 감동·웃음 선사

3월 14일 토요일, 리얼리티 승무원 도전기를 그린 채널A 프로그램 ‘비행기 타고 가요 2’ 세부 퍼시픽 항공 마지막 방송분이 방영돼 인상적인 시청률을 찍었다. 1회차에서는 세부 퍼시픽 항공 본사 승무원 교육이 진행됐고 ‘비행기 타고 가요 2’ 출연진인 신현준, 황제성, 유이, 은지원, 송윤형(iKON)이 참여했다. 인천-마닐라 노선에서의 두 근대는 실습기부터 인턴 크루 ‘오영주’가 깜짝 동행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Fly to More Fun!’이란 슬로건을 지향하는 세부 퍼시픽 항공 승무원 교육은 슬로건과 어울리는 유쾌한 분위기와 함께 안전성이 강조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비타 크루들이 세부 퍼시픽 항공의 기내에 승무원으로서 첫 탑승한 촬영 중에는 지금까지 ‘비행기 타고 가요’를



세부퍼시픽항공 비타 로고 /세부퍼시픽항공

통해 노출된 기종 중 가장 큰 규모 A330기종이 등장했다. 총 436석에 달하는 A330 탑승을 앞둔 비타 크루들이 첫 대형 항공기 체험에 잠시 긴장감을 표했으나, 승객 탑승이 시작되고 동시에 함께한 세부 퍼시픽 소속 승무원들과 호흡을 잡으며 비타 크루의 역량을 한껏 발휘했다.

3월 7일 2회차에서는 기내 서비스도 전기를 성공적으로 마친 비타 크루가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즐긴 일일 투어가 방영됐고, 14일 마지막 회차는 아쉬움 가득한 비타 크루들의 비행기가 소개돼 감동과 웃음을 선사했다.

/이민희 기자

프린세스크루즈

코로나19 사태로 두달간 운항 중단

일본·미국서 코로나19 영향받아

프린세스크루즈가 지난 13일부터 5월 10일까지 60일간 18척의 모든 크루즈 운항을 중단한다고 15일 밝혔다.

프린세스크루즈의 잔스와츠사장은 “우리는 70개국에서 매일 5만 명 이상의 승객에게 크루즈 여행을 제공하고 있는 글로벌사로, 이번에 일본과 미국에서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며 “60일 자발적 운항 중지라는 과감한 조치를 통해 전세계 고객들과 승무원, 우리가 기항하는 모든 국가와 지역사회 건강과 안전,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3월 17일 전에 일정이 끝나는 승객들은 예정대로 여행을 마칠 수 있으며, 3월 17일 이후에 여정이

끝나는 승객들은 본인들이 가장 편리한 장소에서 여행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승객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사전에 크루즈 비용을 완납했으나 이번 잠정 운항 중단으로 크루즈 여행이 취소된 승객들은 환불 받거나, 환불 대신 향후 원하는 시기에 일정을 다시 예약해서 여행할 수 있는 퓨처 크루즈 크레딧으로 선택할 수 있다.

특히 퓨처 크루즈 크레딧을 선택한 승객들에게는 프린세스에서 지정한 비율에 따라 본인이 지불한 금액에 추가로 최대 125%의 보너스 혜택이 제공된다. 프린세스 크루즈는 2월 4일 이후에 완납하고 예약을 취소한 승객들에게도 이 제안을 소급해 적용할 방침이다.

/이민희 기자

크리스탈크루즈

TTG ‘2020년 최고의 럭셔리 크루즈’ 수상

총 14개 부문서 우수성 인정

올인클루시브(All-Inclusive)를 지향한 크리스탈크루즈는 TTG 럭셔리 트래블 어워드에서 2020년 ‘최고의 럭셔리 크루즈’에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총 14개 부문에서 우수성을 선별하는 본 상은 여행업계에서 호평 받는 전문가들이 투표하는 상이라 더욱 의미가 있다. 선정 기준으로는 크루즈사 중에서 고객과 승무원의 비율, 고객 맞춤형 서비스 등을 토대로 최고 중 최고를 가린다.

크리스탈크루즈는 ‘진정한 럭셔리란 고객 맞춤형 서비스로부터 정의한다’라는 철학을 토대로 크루즈 탑승부터 경험 전반에 걸쳐 승무원이 제공하는



크리스탈 크루즈. /에스마케팅

따뜻한 서비스와 고객과의 교류를 최우선으로 하는 크루즈 선사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크리스탈크루즈 크리틱에 올라온 리뷰와 피드백을 바탕으로 인기 크루즈를 선정하는 2019년 ‘미국&캐나다 지역 2019 최고의 스톱 크루즈 선사’로 선정되었다.

/이민희 기자